



정교회주보

제2502호

2024.12.08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엘리아 예언자 수도원(사진)은 12세기 예루살렘에서 베히레헴으로 가는 해발 817미터 도로변에 세워졌다. 원래 이곳에는 비잔틴 교회가 있었지만, 614년 페르시아 정복 때 파괴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엘리아 예언자가 이세벨 여왕의 복수를 피해 남쪽으로 도망가던 중(열왕기 상 19,2) 머물렀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루가 제 10주일
성 바따비오스 수도자
(제7조 •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205
- 사도경 : 에페소 2,14~22 .. (봉)318
- 복음경 : 루가 13,10~17 12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자선으로 쌓는 덕

신 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우리에게 자선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구호해 주고, 그리스도를 먹이고, 그리스도를 입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 온 우주의 주님은 희생 제사 대신 우리의 자비를 원하십니다. 수천 마리 양보다는 우리의 연민과 동정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 불행한 이들의 손을 통해서 그분께 이 자비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장막 안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와 가난'[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진실과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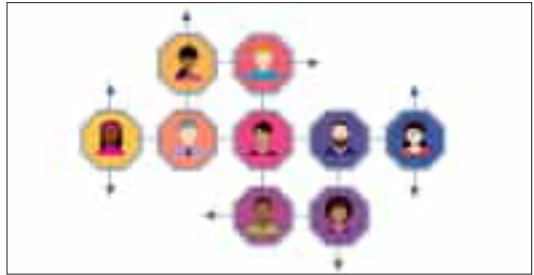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초대 시대 때에 교회는 두 부류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였습니다. 교회 밖의 요소로는 처음에 유다 주의가, 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종교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위험한 요소는 이단들과 분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고귀한 순교로써 유다 주의와 우상숭배자들로부터 방어되었고, 이단들과 분열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해서 방어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부들이신 성직자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저서로써, 그리고 공의회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단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물리쳐 교회의 바른 믿음을 정립하고 지켰습니다. 그 한 예로 AD451년 할키돈에서 열렸던 제4차 공의회에 참석했던 교부들은 단성론 주의를 단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시고 함께하였다는 바른 가르침을 정립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그의 제자이자 크레테의 주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 1장 10-16절을 통하여 교회에서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며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밭살스럽고 완고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디도 1,16)

성대 바실리오스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바른 믿음을 모방하고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위조합니다.” 이단자들의 목적은 바른 믿음을 부정하고 반대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의 탈을 쓴 거짓 예언자들로서 주님께서도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마태오 7,15)

교회 안에서 그릇된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바울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1고린토 11,19)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지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2베드로 2,1-2)

이단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반대로 진실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며 영원한 구원의 희망찬 길로 인도해 줍니다. 거짓된 이단들과 분열주의자들의 속임에 현혹되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서 바른 믿음을 배우고 지키도록 합시다.

성탄절 금식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성탄절 금식...

세상으로부터 배고픈 시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40일 동안의 기대와 기다림.

마치 아버지가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분만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한 인내와 기다림의 40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우리를 들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탄절...

종교는 폐지되고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날...

금식...

이것은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만드신 (신체의) 부분들이 안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 유한한 우리의 실존이 교회의 신랑이신 분(그리스도)께 내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대림) 날들...

고백성사 때 영적 아버지가 우리 머리 위에 영대(領帶)를 드리우고

우리의 마음은 구유가 됨으로써

하느님이신 아기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태어나시게 되는 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훌륭한 영적 투쟁을 합시다.

성탄절 전의 40일 대림 기간에 좋은 속죄(贖罪: 죄를 씻는 것)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변모될 것입니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11일(수)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주님의 양 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2월 12일(목)
성 스피리돈 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2025년도 축일 달력 발간
주제는 '이콘'이며, 탁상용은 7천원, 벽걸이용은 1만 5천원입니다.



알림

■ 양구 성당 철야 예배를 마치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 예배가 지난 11월 29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0일(토) 아침에는 1시과와 설교가 있었습니다. 참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거룩한 성탄절 맞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대축일을 금식과 예배, 특히 고백성사를 통해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백성사는 고백 사제께 문의 바랍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국제 신학 회의 참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지난 11월 24-28일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1세기 정교회 신학 - 도전과 전망'이라는 국제 신학회에 연사로 참가하여, '큰 위협 속에 있는 전 세계 정교회 증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세계 50개국에서 많은 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영성의 샘터

순교자가 되는 영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에 어떤 신자가 자기 여종의 밀고로 붙잡히게 되었다. 심한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 도시 외곽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우연히 길에서 그를 밀고한 여종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금가락지를 빼서 그녀에게 줬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말을 건넸다.

“너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고맙구나.”